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며

In Preparation for a New Millennium

김희곤 / 흥간건축사사무소
by Kim Hee-Kon

세월의 시계침을 갑자기 거꾸로 돌린 듯 호흡하기가 곤란해지는 시간속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온 것 같다. 현실의 환경에 익숙해지려는 자아와 지난날의 향수에 취해 안주하고 싶은 환상사이에서 부침하는 혼돈속에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산속에 조난당해 죽은 사례중에 스스로 갑자기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한다. 현재의 자기자신부터 올바로 이해하는 것만이 작금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단초가 된다는 말이다. 그동안 우리가 집착했던 공간은 작은 구조물 속에 존재하면서 작은 공간 밖으로의 환상만을 꿈꾸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 양수속에서 산모의 신체일부로서 성장과정을 멈추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은 산모나 아기 모두 고통의 순간이 된다. 우리도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는 큰 공간에 대한 작은 깨달음의 고통인지도 모른다. 물리적으로는 집과 집 주변의 자연이 모두 공간이고 그 자연을 보호하는 대기권이 또 다른 공간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기회가 없었다. 크게는 음(달)과 양(태양)이 존재하는 우주 또한 더 큰 공간이라는 것을 단지 분위기로 알고 있었다.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의지해온 제도적 틀이 세계화, 국제화음으로는 이미 낡은 틀인데도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으나 반문해야 한다. 지금의 세계사회는 서로간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상호 공존해야만 하는 또 다른 탄생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다. 출산의 고통이 또다른 삶과 세상으로 열리는 진보의 과정이라면 그 고통은 분명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고통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역사를 이해할 때 제일 중심에 있는 가치는 미래를 여는 열쇠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과거를 복제하거나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발견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문화는 새로운 이념을 기반으로 성장·발전·소멸되고 있으며, 그 반복되는 과정에서 인류의 역사는 한발 한발 전진하고 있다.

문화는 이념을 뿌리로 사회체제 및 정치를 줄기로 하여 문화라는 꽃을 피운다. 그 문화를 이해하려면 분명 뿌리를 봐야 한다. 우리의 건축문화 또한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20세기 전반을 일제강점기로, 나머지 절반은 경제성장드라이브로 숨가쁘게 성장위주로만 달려 왔다. 모든 것에 앞서 경제성장만을 보며 잘살아 보자고 허리띠 졸라맸다.

선진문화를 수입하기에만 급급했던 우리도 여행자유화로 외국문화를 직접 접하는 여유도 가지고 유학세대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므로써 시각적으로도 풍족해졌으며, 빠른 정보화도 그 속도를 더하고 있다.

친일파가 해방이 되어서도 다시 개혁세력으로 옷만 바뀌었고 있는지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 한 문화의 성장발전을 대략 250년으로 본다면 이제는 우리화한 문화이념을 정착시키는 단계가 되었다고 본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 그 반세기 동안 축적되어진 정체성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웃 일본은 패전의 잣대미에서, 우리는 한국전쟁을 기반으로 산업사회로 발빠르게 변모하여 오늘날 선진 문화국가로 변모했다. 실패 좋은 일본은 스스로의 이념을 기반으로 생산된 현대문화를 세계시장에 당당하게 내놓고 있다. 일본의 건축문화 또한 세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

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도 남의 것을 무분별하게 수입해서도 안되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서도 안된다. 무분별하게 들어오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에 의해서 여과될 수 있어야 한다. 당당하게 우리의 것을 발견하고 성장 발전시켜 세계시장에 선보여야 한다.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세계는 블록화되어가고 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해체이후 새로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생겨나고 있다. 어제의 이념이 아니라 내일의 이념으로 서로의 이념으로 서로의 경계를 허물어 가면서까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만형인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핵심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다. 신자본주의가 대두되고 있지만 같은 계열의 동종번식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제는 민주적 시장경제논리를 거부하기 힘든 상태에 와 있다. 자본주의의 첨병인 기업에서는 과거의 경험과 이념이 휴지조각이 되고 있으며, 기업의 목적중의 하나가 이윤을 산출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회사의 창업업종이라도 내일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IMF 상황에 처한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건축계의 현실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내부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공통된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보고 있다. UIA의 상호인증제도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현실이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흐름이 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했던 틀을 바꾸고 버리기 전에 우선 그 틀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혹시 남은 힘이 있다면 우리 건축문화를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냉정하게 우리의 틀을 세심하게 조사해야 한다. 우리의 건축법이 문제가 없는지, 일제시대 유산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나 없는지, 제대로 지속적으로 대관 대민 설득을 해왔는지...

우리의 3단체가 그 허물을 찾고 바로 잡는데 쓰여져야 한다. 3단체가 서로 잘 할 수 있는 일부터 그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오늘의 건축문화를 포장하기 보다는 진실을 발견해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문화는 내성이 약할수록 걸치레에 무더진 빈 껍데기만 남는다.

한 문화는 생성소멸하면서 미래로 발전하면서 그 생명을 지속한다.

대대로 역사적으로 문화적 퇴행화 현상도 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발전의 과정에 놓여 있다.

비평이란 부분도 당연히 건축문화의 한 부분임과 동시에 작품과 분리되어질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정신을 글로 옮기는 한계를 인정하고 검토할 줄 알아야 하며, 더욱이 개인적인 생각을 글로 나타낼 때도 숙고해야 한다. 하물며 남의 생각이나 작품을 지적할 때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요지가 전달되는 데 혼란이 없어야 한다. 법률적인 상식을 들추지 않더라도 증거를 확보하는 객관화의 틀을 갖추어야 한다. 정황으로는 곤란하다. 더욱이 감정적 흔적은 더더욱 지양되어야 한다.

한때 기호론이 대두되었을 때도 문자가 가지는 한계를 경험한 바 있다.

동양철학에세이의 “진리는 몸으로 얻어라”는 부분을 옮겨본다.

환공이 어느날 서재의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뜰에서 수레를 손질하던 늙은 일꾼이 그것을 보고 물었다.

“어르신이 읽고 계시는 책이 무슨 책임니까?”

“성인의 말씀이 적힌 책이다.”

“그 성인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그러면 그 책에 쓰여 있는 것은 성인의 찌꺼기 같은 것이군요.”

환공이 벌떡 일어서며 칼자루를 잡고 말했다.

“일꾼 주제에 무례한 말을 지껄이는구나. 잘 해명하지 못하면 네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그러자 늙은 일꾼이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제 자신의 경험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제가 만드는 수레바퀴는 너무 꼭 끼이게 하면 잘 돌아가지 않고, 너무 느슨하면 걸 뚫니다. 꼭 끼이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손에도 마음에도 딱 맞는 그 정도를 맞추는 요령을 도저히 말로써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녀석에게도 가르칠 수 없어서 이 나이가 되도록 직접 수레바퀴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인이란 분도 진정한 것은 말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쓰여 있는 것은 성인의 찌꺼기 같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말은 몸으로 얻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말은 또 몸으로 얻어야 한다고 해서 책을 버리고 역사 경험을 무시하라는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수레 제조공이 “말로써는 표현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말은 경험을 쌓은 뒤에 얻은 가장 미묘한 작업, 가장 어려운 작업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가 유적에 대한 글을 쓸때도 정보를 종합하고 그 장소에 열번이상 다녀오는 수고를 하고, 그 흔적을 발견하는 노력을 한다. 건축사의 작품을 이해할 때에 가능하면 작가의 작품이행과정을 이해하고 현장을 살핀 뒤에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세계적인 건축사나 현재 활동하는 대표적인 외국 건축사들도 30~40대에 독창적인 건축개념을 설정하고 50대 후반 60대에 와서야 비로소 그 개념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능하면 총체적 비평(검정과정)이 건축사가 일관되게 정진하면서 수작을 만드는 인고의 과정을 보도록 해야 하며, 건축지평을 넓히고 더 많은 건전한 담론을 생성시켜야 한다.

겸양지덕을 갖추고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겁게 태산같은 자부심으로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출줄도 알아야 한다. 한 개인보다는 앞선 사람이 남은 사람을 생각하는 실천적 모범이 되어야 한다.

모름지기 작가의 작품은 선비정신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세계적인 거장의 경우 30~40대에 반짝하는 경우도 있지만 50대 이후 60대에 걸작이 탄생하는 것을 보아왔다. 작가의 작품은 일관된 정진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간과되어선 안되는 것이 일관되게 정진하면서 수작을 만드는 과정에 총체적 비평(검정과정)이 냉정한 이성적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이 친구의 조언에 의해 자기도취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걸작으로 남아 있는 일화를 알고 있다. 그 조언 또한 비평의 기능이다. 또한 우리도 가능성 있는 건축사에게 관심을 갖고 좋은 건축사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일본국내에서만 공부했어도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세계적인 대학강단에 서는 것을 보고 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싹을 자르지 말아야 한다. 물론 우리 건축사들도 국내용인가, 국외용인가 구분짓기 보다는, 세계건축계에서 작품을 전시해도 주목받을 수 있는 역량을 빨리 갖추어야 한다. 내용보다 참가 횟수가 프라이드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더이상 우물안의 개구리식은 안된다. 외국의 유명건축사들을 보면 의식적으로 상대 건축사가 쓰는 디자인 방식은 물론 분위기, 재료까지도 쓰지 않는다. 안도의 노출 콘크리트와 마키의 노출 콘크리트가 다르고 이토의 노출 콘크리트가 다르다. 비슷하게 하거나 흉내를 내는 정도로는 우리

의 정체성을 세계시장에서 담보하기는 곤란하다.

우리도 스스로 인재를 키워야 한다. 누가 잘되느냐 보다는 좋은 건축가층이 두터워져야 한다. 건축계에서도 음악계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축사가 나와야 다음에 또다른 건축사가 계속 나온다.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을 장기적으로 정진하는 선비정신이 필요하다. 독자적인 건축이념을 갖추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작가정신을 갖추어야 한다.

이토도요의 인터뷰에서 물어나는 작가정신을 옮겨본다.

“일본의 건축가는 스스로 올라섰다는 포즈를 취하는 건축가가 너무 많다. 다시 말해 어느 지점에 정지한 채 안정을 위한 사람이 많다는 말이다. 새로운 것을 추가 하면서 도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물론 건축이란 심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스타일을 정해두고 깊이 추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단지 소피스티케이션(sophistication)에 빠져버리면 그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한다. 50대란 건축가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부터 10년이 승부처가 될 것이다.”

이 말 속에 내면의 충실함과 겸손을 엿볼 수 있다.

우리의 시각으로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고 아울러 세계적인 틀 속에서 우리의 틀을 바꾸어야 할 부분도 있다.

우리 스스로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 아전투구하는 사이에 세계는 너무 많이 빨리 변하고 있지 않나 반문해볼 때이다.

최근 UIA 상호인증제도는 우리의 제도에 대한 국제적 시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증명하고 있다. 늦었지만 낡은 틀과 제도를 바꾸기 이전에 무엇이 잘못되어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개개인의 형편과 이해득실보다 건축문화인프라가 튼튼히 구축되어야 한다. 그 위에 다양한 이념과 시각이 상호경쟁적으로 시장경제논리에 의해 성장발전해 나가야 한다.

빌게이츠는 생각의 속도라는 캐치프레이저로 21세기의 10년은 20세기의 50년과 같은 속도로 변할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여기서 더 멈출 수는 없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